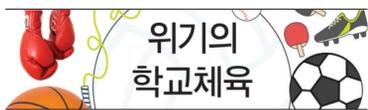


인구감소에 학령인구 '뚝'...25년 배구 명문 역사 뒤편길로



위기의 학교체육

<2> 별교상고 배구부

"별교상고 배구부가 대회에 나가면 선수가 너무 많아서 늘 '별때'라고 불렀어요. 그때가 그림입니다."

서정식(60) 전 별교상고 배구부 감독은 최근 찾은 보성군 별교상고 강당 배구 코트 위에서 지난 20년간 제자들을 떠올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 감독의 머릿속에는 많은 선수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호남의 배구는 별교상고로 통하던 2000년대가 있었다. 당시의 활약상은 교내 2층 넓은 공간에 마련된 트로피와 메달 전시장에서 엿볼 수 있었다.

1997년 3월 창단 이후 수많은 프로배구 선수를 배출해 낸 별교상고 배구부는 전국남녀중별배구선수권대회와 전국중고배구대회 등에서 수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현재 프로배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부용찬(OK저축은행), 김규민(대한항공), 안지원(삼성화재)부터 KBS N 스포츠 배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봉우 등 많은 이들이 별교상고 배구부 출신이다.

2000년대 호남 배구 이끌어 김주영·김건우·안지원 등 배출

선수 구하기 어려워 2022년 해체 전남지역 배구부 4곳만 남아

일상 속 클럽 문화 활성화 시급

대회에 나가면 '별때'라고 불렀던 별교상고 배구부는 선수 수급이 어려워 2022년 해체됐다.

서 전 감독은 "팀이 해체되는 마지막 순간에 김주영(한국전력), 김건우(OK저축은행) 등 9명의 선수가 남아있었다. 이 친구들은 끝까지 배구를 할 수 있게끔 순천제일고 등 타지역으로 전학 시켰다"며 "초·중학교 선수 연계가 안 되고, 배구부가 약화되면서 동문 지원금도 끊기다 보니 팀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25년의 역사가 막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였다.

서 전 감독은 "2000년대 초반 해도 전남에 순천, 고흥, 담양, 별교 등 4개 초·중학교가 있어서 자연스레 연계 육성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초·중학교 운동부가 사라졌고 선수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현재 전남지역 학교 배구부는 순천대석초, 순천팔마초, 순천제일고, 목포여상 등 4개가 있다.

전남은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 46만 6000명이었으나 2010년 34만 1000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0년에는 26만 2000명으로 줄어들면서 20년 간 학령인구 43%가 감소했다. 2024년에는 23만 2000명으로 2000년부터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으며 2030년에는 19만 명, 2050년에는 11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같은 시기 광주는 2000년(37만 4000명)부터 2020년(26만1000명)까지 20년 간 학령인구 감소세가 24%였다.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대전은 같은 기간 학령인구 감소세가 30%인 점을 감안하면 전남지역 학령인구 감소세가 유독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서 전 감독은 절대적으로 선수 수급이 어려운 만큼 배구 클럽 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구는 축구나 야구와 같은 인기 종목이지만 그에 비해 클럽 문화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 기능·신장 등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스포츠들보다 선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클럽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별교 글·사진=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서정식 전 별교상고 배구부 감독이 학교에 마련된 메달과 트로피 전시 공간에서 배구부가 각종 전국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을 가리키며 2000년대 전성기를 회상하고 있다.

"선수들 진짜 목소리 대변하겠다"...김국영, 체육회 선수위원 선출



"내년 현역 마지막 해 최선 다할 것"...복싱 임애지·양궁 김우진 등 13명

"위원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웃은 김국영(34·광주시청)이 선수들의 진짜 목소리를 내는 '대변인'을 다짐했다.

'육상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 김국영이 대한체육회가 선수위원에 선출됐다. 김국영은 지난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화순군청 임애지(복싱), 김우진(양궁), 김지연(철인3종), 류한수(레슬링), 이다빈(태권도), 이주호(수영), 임애지(복싱), 조성민(요트), 최인정(펜싱), 표승주(배구)와 함께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이 됐다.

하계종목 13명 중 10명이 선출됐고, 동계 종목은 오정민(루지), 이돈구(아이스하키), 차준환(빙상) 3명만 후보 등록을 하면서 투표 없이 당선됐다.

김국영은 "선수들의 목소리나 하소연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됐다. 선수들의 '진짜'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육상 선수들의 멘토로 통하는 그는 폭넓게 체육계 후배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할 생각이다.

김국영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선수들이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다.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목소리를 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오랜 시간 선수를 하면서 여러 감정을 느꼈었다"며 "나도 가끔은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다. 육상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국영은 선수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2024년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그는 내년을 현역 마지막 시즌으로 삼고 있다.

김국영은 "선수 생활은 내년까지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다. 잘 준비하겠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수분들의 역할에도 충실하면서, 책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농구·벨리협회, 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광주시농구협회와 광주시벨리협회가 광주시체육회 소속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시체육회는 지난 23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농구와 벨리댄스 종목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관리단체 지정은 해당 단체가 정상 운영이 어렵거나 재정난 또는 비리, 운영부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위 기관이 개입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농구협회는 제4대 회장선거와 관련해 회원단체 내 분쟁 등이 이어짐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시벨리협회는 60일 이상 회장 등 임원진의 공백이 이어져 자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서 관리단체에 포함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거리측정기 효과 '톡톡'...PGA 투어 경기 시간 단축

6개 대회서 한시적 허용...40~60야드 샷 5.1초 빨라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거리 측정기 시범 사용 결과 경기 시간 단축 효과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PGA 투어는 지난 4월부터 RBC 헤리티지부터 5월 머틀비치 클래식까지 6개 대회에서 거리 측정기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 기간 거리 측정기를 사용한 선수와 캐디 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번째 샷 칠 때 속도와 파 5홀 플레이가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PGA 투어는 설명했다.

특히 그린에서 40~60야드 떨어진 지점에서 공을 칠 때 걸리는 시간이 페어웨이에서는 평균 4.9초, 러프에서는 평균 5.1초 단축됐다.

대개 이 거리에서는 선수들이 공을 떨어뜨리려는 지점까지 걸어갔다 돌아오는 보족(歩脚)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곤 한다. 거리 측정기 사용으로 이런 보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라운드 시간 단축 효과는 선수마다, 라운드마다, 코스마다 조건이 달라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PGA 투어는 덧붙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 단축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PGA 투어는 거리 측정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PGA 투어의 타이틀러 데니스 슈석 경기 운영책임자는 "설문과 데이터에서 확인된 긍정적 반응을 반영해 빠르면 시즌 중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이에 앞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지난 2021년부터 선수와 캐디에게 경기 중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역시 경기 중에 거리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PGA 투어가 아닌 미국프로골프(PGA of America)가 주관하는 PGA 챔피언십도 2021년부터 거리 측정기를 쓴다.

PGA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와 시니어 투어인 PGA 투어 챔피언십 역시 거리 측정기를 허용한다.

다만 이들 국내의 프로 대회에서 높낮이 보정 기능 등 단순한 거리 측정 기능만 탑재한 측정기를 쓰거나 높낮이 보정 등 다른 기능이 있다면 다 꺼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오예진, 양궁대회 예선전 전종목 석권

광주여대 오예진(4년·사진)이 대통령기양궁대회 거리별 예선 경기에서 전 종목 메달 4개를 획득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24일부터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 예선전에서 오예진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오예진은 여자대학부 30m 경기에서 358점을 쏘며 금메달을 얻어냈다.

오예진은 50m에서는 343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60m에서는 342점으로 탁해운(순천대), 나민지(계명대), 이수현(계명대)과 공동 2위에 올랐다. 70m 경기에서 오예진은 340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자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 전준희가 30m에서 356점을 얻어내며 김태서(충북체고), 조세현(서울체고)과 함께 1위에 등극했다.

여자일반부 30m 경기에서는 최미선(광주은행)이 임두나(LH), 박예지(대전체육회)와 함께 356점을 기록하면서 공동 1위에 올랐다.

50m에서는 343점을 쏘 유시현(순천시청)과 이기현(대전체육회)이 나란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60m에서는 김수린(광주시청)이 348점을 쏘며 은메달을 수확했다.

남자일반부 90m 경기 금메달은 325점을 쏘 이승윤(광주남구청)과 구본찬(현대체절)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김대인 기자 kdi@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별의 항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6회 정기연주회 'Contrast'

일시 : 2025-06-2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별의 항해

일시 : 2025.6.5 ~ 7.6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